**행0743 Note**

**◆Cross check : 왕하1603, 암0525-27**

왕하1602. 그가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에, 아하스가 이십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십 육년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으니라,

왕하1603. 대신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안에서 걸었으며,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앞으로부터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것들에 따라서, 그의 아들로 불을 통해 지나가게 하니라,

왕하2106.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로 불을 통해 지나가게 하고, 또 때들을 살피고[아난:덮다,하늘이 잔뜩 흐리다,은밀히 행하다,마술을 행하다,가져오다,마술사,시간을 살피다(살피는 사람),점장이,마법사], 마법을 사용하고(나하쉬:쉿하는 소리를 내다,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예지하다,확실하게 점치다,복술사,복술,관찰하다), 친숙한 영(靈)들과 마술사(이데오니:아는자,마술사,유령,신접자)들을 다루니라, 그가 그분을 분노에로 격동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많은 사악함을 행하니라,

왕하2310. 그리고 그가 힌놈(힌놈:힌놈,여부스족 사람인 듯함)의 자녀들의 계곡에 있는 도벳(토페트:예루살렘 인근의 지명,도벳)을 더럽혔으니, 이는 아무도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로 몰렉에게로 불을 통해 지나가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암0525.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희생제물(제바흐:도륙,동물의 육체,제사,희생물,헌물,제물)들과 헌물[민하:헌물,조공,특히 희생제물(보통 피없는 자원제),선물,봉헌물,소제]들을 내게 올렸느냐?

암0526.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몰렉(몰레크:암몬족속의 주요 신 몰렉,아이를 희생제물로 받는 우상)의 장막과①, 너희의 형상들 '기윤[키윤:상(像),우상,기윤]' 곧,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만들었던 너희 신(神)의 별을② 가져갔느니라 (나사:들어올리다,받아들이다,전진하다,일어나다,취하다,초래하다,운반하다,가지고 가버리다,던지다,담고있다,떠받치다,싣다,획득하다,일으켜 세우다,세우다).

암0527.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다마스커스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몰렉 / 인터넷 자료**



페니키아 고유 신화에서 등장하는 다신.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것의 정확한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불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유명한 것은 인신공양의 제사 방식 때문이었다.

제물로 선정된 아이를 위 사진과 같은 놋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소머리 형상의 우상에 바치게 되는데, 이 우상의 가슴 부분이 아궁이로 되어있었다. 여기에 불을 지펴 우상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 그 팔에 살아있는 아이를 안기는 방식이었다. 아이는 몸부림치다가 팔의 경사를 따라 아궁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며 이때 아이의 절규와 부모의 오열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매우 시끄러운 북소리를 곁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신공양은 페니키아뿐 아니라 페니키아 출신들이 건설한 식민지에서도 남아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잔인하고 몹쓸 풍습이라고 여겼었다. 특히 페니키아 출신 도시이자 저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카르타고와 싸움을 벌였던 로마인들이 매우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카르타고를 파괴한 뒤 "이러한 풍습을 가진 카르타고 인들은 로마인들에 비해 더 잔인하고 야만적이므로 멸망당해도 싸다"라는 식의 선전을 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곳엔 크로노스의 형상을 띈 청동 형상이 있었고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으며 이것은 살아있는 아이들을 잡아삼키는 것이다. 이 불꽃이 아이의 몸을 삼킬때 그 청동상의 사지와 벌어진 입은 거의 웃는 것처럼 불이 치솟았고 이는 그 몸이 완전히 재가 될때까지 그리하였다. 이것은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뜻으로 알려지는 표현이 되는데 이는 죽을 때 웃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플라톤

카르타고 시내엔 크로노스의 청동상이 있었고 이는 손바닥을 바깥으로 내민 형태로 두팔을 벌리고 있었고 이 팔은 아래로 떨어지는 경사가 나 있었다. 따라서 살아있는 아이를 이 빨갛게 달구어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는 이 팔을 따라 가운데로 굴러 떨어지며 곧 석상 중앙의 활활 타오르는 불속으로 떨어져 재가 된다./ 디오두루스 시쿨루스

디오두루스는 또한 카르타고 인들이 과거 시칠리아 섬내에서 그리스 인들에게 패배하였을 때 귀족들이 몰렉 신이 하층민들의 아이들을 바친 것에 대해 분노하였다고 여겼고 따라서 귀족의 아이 200명을 즉시 바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들은 열성적으로 응하였기 때문에 300명의 귀족의 아이를 바쳤다고 하였다. 그 청동상이 있는 장소에선 어마어마한 소리의 플룻과 북이 울려펴졌는데 그 이유는 울음과 비명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플루타르코스

**기독교에서 나오는 몰렉**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악마 중 하나.

모습은 미노타우루스처럼 머리는 수소, 몸은 인간 같다고 한다.

영어로는 Moloch 혹은 Molech이라 하는 듯.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מלך인데, '멜렉'(melech : 왕)의 자음과 '보셰트'(boshet : 수치)의 모음을 합한 데서 유래했으며,

’보셰트'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바알('주인'이라는 뜻)이라는 유명한 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종종 사용된다.

옛날 셈족이 섬겼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인 중에서 섬긴 자가 있어(심지어 왕마저) 신의 분노를 샀다. 신(야훼) 의 분노를 산 이유인 즉슨,

이 악마가 어린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실로 잔인하다.

몰렉의 상에는 7개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순서대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등을 집어 넣고 마지막에는 인간 아이들을 집어 넣었는데,

인간 아이들을 집어 넣었을 때의 비명소리를 지우기 위하여 북과 나팔소리로 이를 가렸다 한다. 위의 몰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악마가 아닌, 일반적인 이방인의 신으로써의 언급은 레위기에 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는 돌로 쳐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유대교가 이방 신 숭배에 대해 매우 엄격했던것도 있지만 그만큼 몰렉에게 인신공양하는 것이 끔찍한 행위였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몰렉과 관련된 언급이 열왕기하에도 등장하는데, 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므낫세 등이 앗수르(앗시리아)의 침입을 받자 아들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했다'고 나온다. 보통 이 사건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인신공양의 형태로 보고 있지만, 인신공양이 아니라 단순히 불을 이용한 평범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수이나마 존재한다.

팔레스타인의 왕을 칭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었다 하며, 이집트의 파라오와 비슷한 의미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성경 창세기에는 아비멜렉의 이름이 언급된다.

다윗에게 속아 그를 도왔다 사울 왕에게 죽은 아론의 후손이자 엘리의 자손인 제사장의 이름이 다름아닌 아히멜렉이다. 사실 당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경우를 꽤 찾아볼 수 있다. 선지자 기드온의 이명이 여룹바알이거나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에스바알이거나 등.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락 야훼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다. 존 밀튼의 실낙원에서도 등장.

기독교에서 지옥을 부르는 방식 중 하나인 게헤나의 근원이 된 악마라고도 한다. 산제물은 어린 아이들을 원했으며, 산제물의 피와 산제물이 된 아이들의 부모의 눈물로 몸을 씻었다고 한다(...). 눈물의 나라의 군주로 지옥회의에 출석하는 나름 고위급 일원이며, 밀튼의 저작인 『실낙원』에도 등장하는 몰렉은 신에 반역을 일으킨 루시퍼군의 부관중 한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존재.

신의 군단과의 싸움에선 4대천사 중 한명인 가브리엘과 싸우지만 패했다